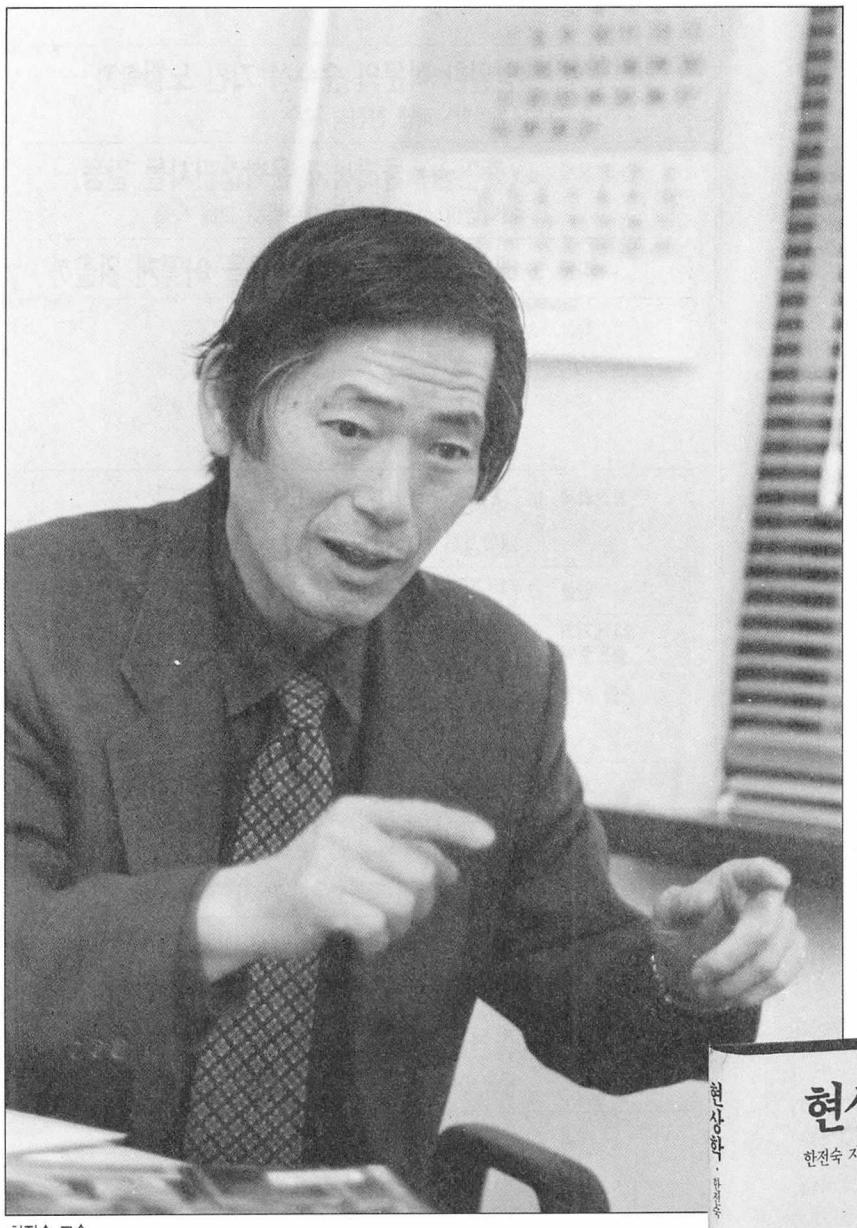
엄밀한 학문의 순수성 지킨 노철학자

《현상학》 펴낸 한전숙 교수



한전숙 교수.

"후설은 살아있는 현재진행형의 철학입니다. 숱한 후설 잡지들이 지금까지도 창간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후설의 현상학은 낡은 것이 아니라 모든 철학적 발전의 공통적인 근원으로 자리합니다. 후설의 그 치밀하고 논리적인 분석의 면모와 현대 사상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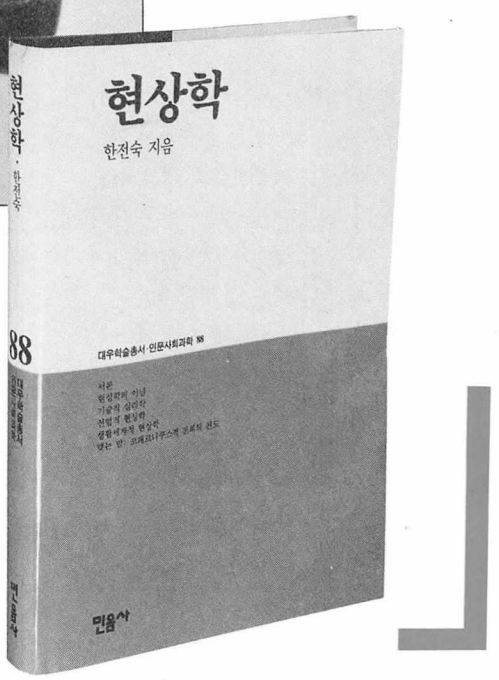
"후설의 현상학이 낡았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후설을 언급하지 않고는 현대 철학을 논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철학적 발전의 공통적인 근원은 후설 현상학에 있습니다. 그 넓고 깊은 뜻을 이해하기에도 후설은 너무나 큰 사상가이지요. 후설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나에게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보다 그 치밀하고 철저한 논리분석을 쫓아가기에도 힘겨운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도 후설의 현상학은 모든 철학에 살아 있다고 봅니다. 현대 사상계에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내놓습니다."

40년 탐구의 총결집

국내 현상학 연구의 시조로 40년 동안 '후설'의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좇았던 한전숙(韓筌淑) 서울대 명예교수(69)가 그간의 탐구를 총정리한 노작 《현상학》(민음사)을 펴냈다.

한교수의 현상학 연구는 현상학의 불모지였던 국내에 거의 첫걸음으로 내디디며 시작됐다. 40여년의 학문 기간 동안 《현상학의 이해》《현대의 철학》(공저) 등 손에 꼽기에도 넉넉한 저서를 낸 것에서 한교수의 엄격한 학문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런 만큼 후설의 전사상을 온전히 자신의 언어로 풀어낸 이번 저서는 40년 정진의 모든 결집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난해하기만 한 '현상학의 세계'를 학문의 정점에 다다른 이의 너른 시각으로 펼쳐보여 일반인들에게도 현상학과 후설의 사유에 다가갈 수 있게 한다.



학부 때부터 니체를 통해 인식론적 입장을 가졌던 한교수가 후설을 만나게 된 것은 59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가다머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실존철학'에 뜻을 두었던 한교수에게 당시 지도교수인 가다머는 실존철학의 하이데거를 알기 위한 입문으로 우선 후설을 읽어보라는 권유를 했다는 것.

난생 처음 접하게 된 후설은 그후 한교수 평생의 화두가 된 셈이다.

후설 전집의 제9권《심리학》을 처음 읽고 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부터 한교수는 가다머교수와는 입장이 달랐음을 나중에야 할게 된다.

"가다머교수는 후설을 관념론적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후설 해석의 시각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후설을 관념론적으로만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인간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일종의 주관적인 거울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인과의 범주로 바라보면 세계는 인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후설은 대상 자체의 실재하는 성질의 중요성을 생각합니다. 대상의 질료 자체가 인과적으로 주어지므로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질료 나름대로의 질서, '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인간의 주관에 의해 좌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후설의 또다른 사유체계이지요."

생활세계적 현상학이 핵심

세기의 관념론자로 일컬어졌던 후설에게 있어 '질료의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사유체계였다. 그가 남긴 저서 대부분은 관념론 체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후기의 저작을 살펴보면 비합리주의 , 이성보다 더 근원적인 것, 그래서 논리적 구성물 밑에 가려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에의 추구, 즉 질료나 생활세계로의 귀환을 주장하는 사상

이 드러난다. 이른바 후설의 '후기사상'이다.

하지만 한교수는 이 '후기사상'이 후설의 사상 초기부터 있어왔음에 주목한다. 그의 강의노트, 사색할 때 썼던 초고들에서 그 흔적은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 따라서 후설에게는 "원래 이성적이고자 하는 강렬한 요구와, 그리고 이에 반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원초적이고자 하는 역시 강렬한 또하나의 요구가 동시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성주의적인 선험적 관념론과 원초적인 것을 추구하는 질료학의 양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 퐁티 등의 실존철학자들이 후설의 후계자임도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또 이들의 '실존적 현상학'이라는 합성어도 성립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후설의 그런 사유는 '생활세계적 현상학'으로 정리된다. 한교수의 이번 저작의 핵심 역시 '생활세계적 현상학'에 놓여 있음은 물론이다.

"후설의 진짜 모습은 관념론의 옆 혹은 밑에 깔린 생활 세계적 현상학입니다. '질료'는 생활세계적 현상학의 핵심주제이지요. 인간의식과 인간의식이 아닌 것이 접촉하는 첫 단계를 질료라고 합니다. 인식이 대상과 접촉하는 최초의 세계, 그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찾는다는 점에서 후설 현상학이 실존철학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지요."

이성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감성의 영역에 관한 학문, 즉 생활세계적 현상학은 보편학을 노리는 이성주의적 충동과 함께 후설 현상학의 양면을 이룬다. 한교수는 이 양면을 똑같이 조명함으로써 후설 현상학이 범세계적인 '현상학적 운동'의 풍요로운 밑거름임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저서의 미흡함을 한교수는 후학들에게로 넘긴다. 이를테면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 현대 여러 철학사조들과의 연관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점을 든다. 또 언어의 문제, 상호주관성의 문제, 생활세계의 문화적 역사적 측면도 충분히 파고들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한편으로는 후설의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료 자체에 대한 문제, 즉 인간의 신체(body)를 '대지' '풍토' 나아가 우주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파고들어야 할 문제는 한교수 스스로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기도 하다.

"후설은 현재 살아 있는 진행형의 철학입니다. 숱한 후설 잡지들이 지금까지 창간되고 있는 것만 봐도 증명됩니다. 50년대 이후 퍼진 현상학 운동은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 퍼져 있습니다. 문학비평과 미학 종교 등 많은 학문분야에서 현상학적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있지요. 시대적 유행이 될 만큼 많이 사용되어 오히려 본래의 뜻을 그대로 간직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현대를 표방하는 여러 사상가들에 따라 현상학을 간단히 보아 넘기는 사람들에게 후설의 그 치밀하고 철저한 논리적 분석의 면모를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설과 함께한 학문 일생

대학시절부터 '순수파'로 불릴 만큼 세상과 자신에 대해 엄격했던 한교수가 평생 후설의 현상학 탐구의 '순수성'을 잃지 않은 것은 당연할 듯싶다. 70년대에 한국철학회 산하에 분과연구회로 결성된 '현상학회'의 2대 회장을 지냈고, 93년 퇴임 후에도 대학원 세미나에서 후설을 강의하면서 테니스를 즐기는 외에는 꼬박 연구실에서 후설과 함께 지낸다. 요즘은 현상학 전문 무크인《오르비스 페노메노로지쿠스》(Orbis Phenomenologycus)의 한국편 기획을 맡고 있다.

현상학 일반에 관한 변변한 소개서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저서를 '조촐한 글'이라고 한교수는 겸손해 한다. 저서 출간에 엄격했던 한교수의 다음 저술은 생각을 묵히고 익힌 한참 뒤라야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지원 기자

SCIENCE MASTERS

현대 과학 세계로의 지적 대탐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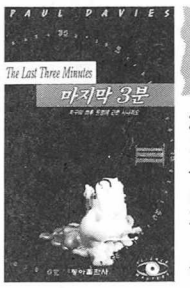
사이언스 마스터즈

이제『사이언스 마스터즈』에서
과학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가십시오.

인류의 무한복제는 가능한가?
지구의 최후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인류의 시작, 그 흔적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미지의 과학세계로 떠나십시오.
쉽게 풀어 쓴 과학이야기—「사이언스 마스터즈」
세계적인 석학 22명이 최신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얘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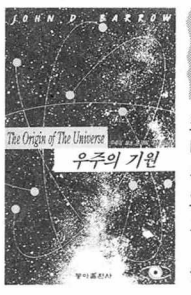
전세계 26개국 동시 출간!!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마지막 3분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친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유전자로 본 진화의 메커니즘
에덴 밖의 강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즈 지음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우주의 기원
코비위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이야기
인류의 기원
인류는 과연 20만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리키 지음

물질의 핵심에 대한 본격 해부
원소의 왕국
물질의 핵심으로의 신나는 여행! 저명한 과학자, 훌륭한 여행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원소의 세계를 기대해 보자.
피터 앳킨즈 지음

4월 발간 예정!!

수학적 시각으로 본 자연의 패턴
수학의 본성
왜 많은 꽃들의 꽃잎이 5개 혹은 8개이고, 극소수에만 6개 혹은 7개인가? 왜 눈송이는 육면체인가? 자연의 수학적 본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언 스튜어트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22권

❶「마지막 3분」: 폴 데이비스
❷「에덴 밖의 강」: 리처드 도킨즈
❸「우주의 기원」: 존 배로우
❹「인류의 기원」: 리처드 리키
❺「원소의 왕국」: 피터 앳킨즈

▶ 추후 발간 예정

❻「수학의 본성」: 이언 스튜어트
❼「지능의 출현」: 윌리엄 캘빈
❽「세포의 진화」: 린 머귤리스
❾「대기와 환경」: 스티븐 슈나이더
❿「뇌 속의 세계」: 콜린 블랙모어
⓫「컴퓨터의 미래」: 다니엘 힐리스
⓬「시간의 시작」: 조지 스무트
⓭「암분자의 기원」: 로버트 와인버그
⓮「입자화학」: 머레이 겔만
⓯「인지과학」: 다니엘 데넷
⓰「성의 진화」: 자레드 다이아몬드
⓱「사회 변화와 적응」: 메리 베이트슨
⓲「생활사의 유형과 방향」: 스티븐 굴드
⓳「컴퓨터와 인공지능」: 마빈 민스키
⓴「적응」: 조지 윌리엄즈
㉑「언어와 정신」: 스티븐 핑커
㉒ 주제 선별중

동아출판사
편집 (02) 866-8800 (교환 317)
영업 (02) 861-4818/ (02) 853-5608